군승지정문제 · 정대스님 발언

조계 – 진각종 첨예 대립

◇진각종 전국청년회 회원 40여명이 16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정대스님의 발언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에 대해 진각종이 강경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서면서 문제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조계종은 위덕대의 군승사관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진각종은 어떻게 해서든 위덕대 지정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 정대스님 발언 배경

9일 조계종 임시종회에서 나온 "어떻게 머리 기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원불교만도 못한 종단이다" "진각종은 불교가 아니다" 등 정대스님의 진각종 비하 발언은 소위 '유발 종단'을 불교 종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날 발언 가운데 "진각종이 청정비구 앞에서 포교하는 꼴을 못보겠다" "조계종은 조계종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조계종은 조계종의 근본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다른 종단의 정체성을 따질 만큼 조계종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가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계종이 정체성을 운운하며 위덕대 군승 지정을 반대한다면 은처승 문제 등을 명백히 해결한 뒤에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내용을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조계종 입장

정대스님의 개인적 판단 외에 종회 차원에서도 위덕대 군승 지정에 대한 반대기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9일 조계종 임시종회에서는 "부족한 군법사는 군승요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군승 실무부서인 조계종 포교원도 지난 7월말 진각종이 서면으로 요청한 위덕대 군승 지정 협조건에 대해 "협조 요청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12일 보냈다.

조계종은 부족한 군승후보생을 조계종 승적을 가진 일반 대화 졸업자도 지원 가능한 군승요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군승장교 정원미달 8년째 계속
기독교 절반에 못미치는 120여명
"위덕대도 지정해야" 여론 높아

◑ 진각종 입장

진각종은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풀되,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덕대 군승 지정 추진 방식에는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종전의 종단차원에서 위덕대 차원으로 업무추진 영역을 전환하고, 위덕대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종단 간의 마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내부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진각종은 정대스님의 발언 파장과 위덕대 군승 지정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대스님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도 개인 차원의 돌출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군승 수급 현황

현재 불교계에서는 위덕대를 군승사관 후보생 선발대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수적으로 부족한 군승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돼야 하며, 그래야만 군 포교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군승은 모두 120여명으로 개신교 290여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승 1년 수급인원을 18명으로 책정해놓고 있으나, 불교계에서 배출되는 군승은 한 해 12~13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신임 군법사 정원 미달 사태는 95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새로 임관한 58명의 군종장교 가운데 불교는 11명에 불과한 반면 가톨릭은 17명, 개신교는 30명이나 됐다.

이같은 상황은 군종장교 지원자격이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졸업생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덕대 등 불교종립학교에 지원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전망

정대스님 발언파문으로 두 종단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당수의 조계종 스님들도 위덕대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각종도 최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여서 정대스님 발언 파문이 이른 시일 내 가라앉을 경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복지시설들 정부지원 큰 기대

불교계 31개 시설 양성화 신고 배경

보건복지부가 15일 조건부 신고제를 마감한 결과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의 경우 36곳 가운데 31곳이 신고해 86.1%라는 높은 신청율을 보였다. 정부의 양성화 유도정책에 대한 이들 시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이들 미신고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 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데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부족, 대형 안전사고, 인권 유린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어 양성화를 꺼려왔다. 여기에다가 까다로운 신고시설 조건, 행정기관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회의(회장 지거 · 조계종 사회국장)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정책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공동협의 창구를 개설해 미신고 시설 양성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문제, 시설종사자 자격기준, 운영비지원 확대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지만, 실효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양성화 신고 31곳 시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은 예산문제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시설당 개 · 보수 비용 3천만원과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기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 또한 막대한 예산 조달이 불가능한 상태다. 때문에 이들 시설장들은 '마지못해 신청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다' 등의 볼멘소리를 내뱉으며 별다른 계획조차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신고하지 않은 시설들의 문제다. 10인 이하의 소규모인 이들 시설들은 그린벨트 안에서 설치된 비닐하우스나 가건물에 의지하고 있는데다가 영세한 재정상태로 기존 시설 유지조차 벅찬 상황이다보니 아예 양성화 신청을 포기한 것.

이에 따라 불교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시설운영 주체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환시설 시설장 협의체 구성과 종교계 사회복지 연대모색 등을 통해 신고전환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대정부 건의 기능을 한다든가 이들 시설의 애로점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세 미신고시설도 대책수립 시급
협의체 구성 등 불교계 연대 필요

또한 전문가들은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시설의 증개축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일반적인 입소기준 현실화 △소규모 시설 중심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등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15일까지 신고된 불교계 복지시설(31곳)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부루나 양로원	6	노인	쌍암사	10	아동.노인
자제정사	70	노인	선재동자원	54	아동.청소년
옥련의 집	10	노인	호산마을	8	장애인
쌍봉 양로원	2	노인	부처님 마을	11	장애인.신생아
더불어사는 집	13	치매 중풍	여성쉼터 연화의 집	0	여성
효심원 은빛마을	10	노인	불로사	20	노인
거북마을	4	노인	청련암	30	아동
보리수마을	31	아동.청소년	소쩍새마을	215	장애인
호암사	20	아동.청소년	굴암사	8	아동.청소년
보광정사	16	아동.청소년	진여원	8	노인
자림원	5	아동.청소년	복향원	7	정신지체
송덕사	15	아동.청소년	송덕사	16	아동
등지 청소년의 집	56	아동.청소년	수덕의 집	10	노인
해뜨는 집	17	아동.청소년	보향원	20	노인.아동
자비원	15	노인	행복한 집	5	소년소녀가장
정토마을 안락원	20	정신지체			

◆불교계 미신고 복지시설(5곳)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시설명	인원	시설유형
봉로원	2	노인	정화사	2	노인.아동
봉곡사	4	노인	대정사	4	아동
석림사	2	아동			

"북한산 터널공사시 붕괴 위험"

국회 건설교통 · 문광위 국감질의 지상중계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토로 건설문제가 불거졌다. 또 같은 날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관광부 감사에서도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의 북한산 관통도로, 달라이라마 방한관련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의원)는 16일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북한산 관통터널공사 시 붕괴와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승국의원은 "북한산 터널의 토피고(최상층부에서 지표까지 높이)가 16.9m밖에 안되는 지점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해봉의원은 "에덴건설의 전 사주 윤모씨는 이용호게이트 연류 의혹을 받았던 정학모 LG 스포츠단 단장과 친분이 있다"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공사인 LG건설이 에덴건설과 정원종합건설에 수의계약으로 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LG건설 하도급 수의계약 의혹 제시
달라이 라마 방한 사회적 합의 중요

한나라당 서상섭, 안경률 의원도 "한국도로공사가 노선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건교부의 참여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12월 31일까지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에 대해 "불교계와 사회각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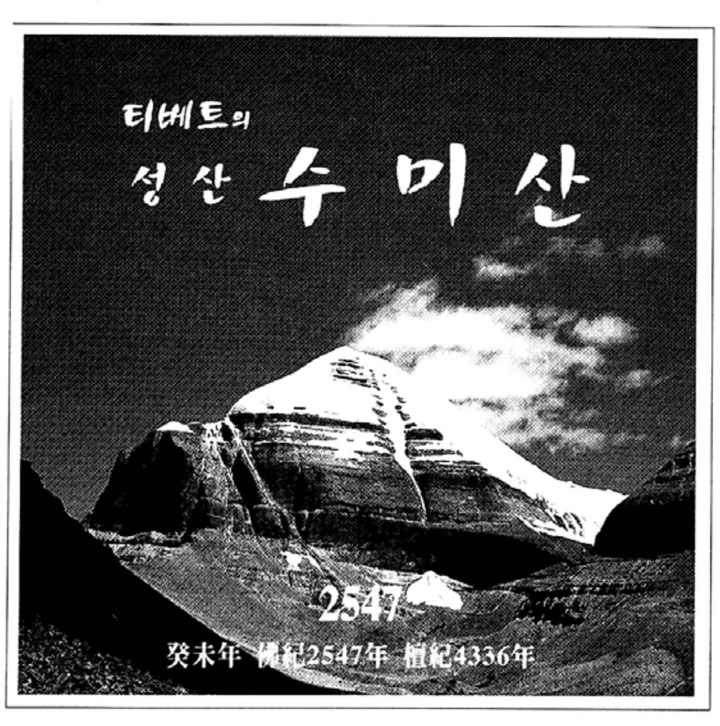
문화관광부는 16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감 답변자료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문제는 그가 불교 승려인 동시에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반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 종교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관계 등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원우 · 강유신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2003년은 수미산 달력으로 선택하십시오



2003년 수미산 달력을 주문받습니다.
이번 달력은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을 실었습니다.
경전상의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 둘레에는 일곱 겹의 황금산들과 일곱 겹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우리의 우주가 놓여 있다.
이와같은 수미산설의 모델이 되는 산이 티베트의 성산인 수미산이다.
해발 6714미터의 수미산은 범상치 않은 모양새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 때문에 이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한다.
수미산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산이다.
티베트인에게 수미산은 성산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운다.
티베트 문화대제전 등 몇차례 출품한 작품들을 모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력으로 신비로운 수미산을 만나보십시오.
◆ 달력주문처 : 실크로드기획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대구) 053-633-3611

■ 성지 순례 안내 ■
• 인도 성지 순례 9일
• 출발 : 11월 7일, 21일
• 스리랑카 순례 6일
• 미얀마 순례 6일
• 캄보디아 베트남 6일
• 인도네시아 순례 6일
• 중국 구화산 황산 5일
• 보타산 항주 순례 5일
- 관세음보살 도량 보타산항주 상해 10월 12일 출발

(주)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TEL:(02)720-9600 / FAX:(02)734-9937
특별한 여행! 티베트 수미산 순례 :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일정 - 21일간 (수미산 순례단 출발은 2003년 6월 1일, 8월29일 년2회 모집)